

사회자본이 개인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유지윤** · 박희봉***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사회자본의 다양한 효과 중에서 개인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때 신뢰는 잘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특정신뢰와 연고가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신뢰로 구분하고, 네트워크는 연고 집단 중심의 결속형 네트워크와 이질적 집단과 교류하는 교량형 네트워크로 구분하여, 각각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회자본이 그것이 형성되는 사회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고유한 형태로 나타나는 만큼 한국사회를 분석 대상으로 할 때 기존 국외 연구와 그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별 특성은 첫째, 사회에서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일반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경제활동이 활발해 지고 소득 수준이 높았다. 반면에 가족, 이웃, 지인과 같이 평소 잘 알고 있는 개인적 관계가 형성된 사람에 대한 신뢰 수준은 경제적 성과와 관련이 없게 나타났다. 둘째, 이질적 집단과 교류하여 폭넓고 다양한 정보 공유가 가능한 교량형 네트워크는 물론, 연고 집단 중심으로 정보소통의 범위가 한정적인 결속형 네트워크 역시 개인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사회자본, 경제적 성과, 결속형 네트워크, 교량형 네트워크, 특정신뢰, 일반신뢰

* 이 논문은 2017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본 연구는 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 주저자

*** 교신저자

I. 서론

사회자본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회 또는 집단 구성원들이 다양한 관계를 통해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이 사회관계가 각 구성원 및 집단, 사회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활용되는데, 이 때 형성된 사회관계의 잠재력을 사회자본”이라는 공통점을 수용한다(Bourdieu, 1986; Coleman, 1988; Putnam, 1995; 박희봉·이희창, 2010). 사회자본은 집단 및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며, 이 관계는 집단 전체 및 개별 구성원에 가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Bourdieu, 1986; Coleman, 1988; Inglehart, 1997; Lin, 2001; Putnam, 1993; 박희봉·이희창, 2010). 집단행동을 용이하게 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사회자본의 장점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성과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는 사회자본의 “자본”으로서의 속성에 주목한다. 사회자본은 물적자본 및 인적자본과 마찬가지로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Coleman, 1988). Putnam(1993)은 이탈리아 남·북부의 경제적 차이를 그 사회에서 형성된 사회자본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한다. 이탈리아 북부가 남부에 비해 전반적인 사회자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시민들의 거버넌스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유하다는 것이다. Putnam(1993)의 연구 이후 사회자본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Knack & Keefer, 1977; Weaver & Habibov, 2012; Yodo & Yano, 2017; Zak & Knack, 2001; 박희봉·이희창, 2010).

한 걸음 더 나아가 연구자들은 사회자본이 경제적 효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자본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에도 관심을 둔다. Granovetter(1973)는 ‘약한 연대관계의 강한 영향력(The strength of weak tie)’을 발표한 이후 사회자본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그는 사회의 구성원은 사회적 관계와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업을 탐색하는 구직자들 역시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 내 네트워크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예를 들어 강력한 연고 집단 중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구직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연고 집단의 도움이 취업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특정한 연고 집단에 속해 있지 못한 개인은 취업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공개된 정보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Granovetter(1973) 이후 다수의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가족과 친구 사이와 같이 연고 중심의 공유하는 강한 네트워크보다 이질적인 특성의 약한 네트워크가 경제적 결과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Beugelsdijk & Smulders, 2003; Briggs, 1998; Putnam, 2002).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신뢰의 영역에 있어서도 연고 집단 중심의 특정한 구성원에 대한 신뢰보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일반 신뢰 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성과가 더 크게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경제성과에 특정신뢰(Tu & Bulte, 2010; 오선정, 2017) 또는 연고집단 중심의 결속형

네트워크(Alesina & Giuliano, 2010; Bian, 1997; Lin, 2001; 이윤구·현명환, 2018)가 더 중요한지, 일반신뢰(Bliek, 2015; Kim, 2015; Michalski & Schupp, 2009; Tu & Bulte, 2010; Yodo & Yano, 2017) 또는 이질적인 약한 연대 중심의 교량형 네트워크(Burt, 1984; Hermann & Kopasz, 2011; Weaver & Habibov, 2012)가 더 중요한지는 연구대상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연구가 진행되는 국가나 지역, 대상에 따라 다른 영향관계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성과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사회자본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자본은 그것이 형성되는 사회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고유한 형태로 나타나는 만큼 그 영향 역시 다를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기존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국외 연구의 결과가 국내에도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사회자본의 특성을 구분하여 그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는 연고집단 중심의 결속형 네트워크와 이질적 집단과 교류하는 교량형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신뢰는 연고집단 중심의 특정신뢰와 연고가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신뢰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할 것이다. 한 마디로 본 연구는 국내 사회자본의 형성 특성을 파악하고, 사회자본의 특성에 따라 경제적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영향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1. 신뢰와 경제적 성과

신뢰는 “공동체 내에서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규범에 기초하여 그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Fukuyama, 1995)로 신뢰가 쌓인 공동체는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개인 간의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투자와 교환을 증진시킨다고 알려져 있다(Cai, 2004; Coleman, 1988; Knack & Keeper, 1997; 고선, 2014; 이동원, 2013). 즉,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는 신뢰는 거래 상대방의 행동을 예상할 수 있음에 따라 시장 주체들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다수의 연구들은 특정 지역의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그 지역의 1인당 소득 수준 및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한다(Algan & Cahuc, 2013; Dincer & Uslaner, 2007; 2010; Knack & Keeper, 1997; La Porta et al., 2000; Zak & Knack, 2001; 이동원, 2013).

신뢰는 거래 당사자의 상호 이익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고 부정행위 요인을 감소시켜 이익을 창출한다(Kim & Kang, 2014; Kim, 2015). 따라서 Sztompka(1999)는 신뢰가 거래 상대방

에 대한 의심, 불안, 경계를 벗어나게 함으로써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신뢰를 기반으로 개인은 상대방이 자신에 비해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자신에게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를 낮추고 경제적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에 더 적은 비용을 투자하려하기 때문이다.(Dearmon & Gire, 2009; Kim, 2015).

또한 신뢰는 개인들 간의 지식 공유를 통해서도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들은 지식을 서로 공유하는 단계에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제공하는 정보를 정확성, 이해가능성, 적시성이 낮다고 생각하여(장용선·김재구, 2006; 이영현·유한구, 2008 재인용) 해당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장용선·김재구(2006)는 사회자본 중 신뢰가 기업 내 종사자의 지식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바 있고, Sherif(1962)와 Wheelless(1978)는 개인 간 지식 공유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함으로써 신뢰를 통한 경제적 성과 형성의 가능성을 제시한다(이영현·유한구, 2008 재인용). 신뢰와 지식 공유는 지식 기반 경제가 도래함에 따라 경제적 성과에 더욱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서 그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Michalski & Schupp(2009), Tu & Bulte(2010), Blik(2015), Kim(2015), Yodo & Yano(2017) 등은 실증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인의 노동 시장 참여와 소득에 대한 신뢰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Michalski & Schupp(2009), Blik(2015)의 연구는 독일의 사회 경제 패널 조사(SoEP; Socio Economic Panel)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일반신뢰와 소득이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Kim(2015)은 미국의 일반 사회 조사(GSS; General Social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일반신뢰 수준이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Yodo & Yano(2017)는 일본의 20세 이상 80세 미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자료를 통해 대인(일반) 신뢰를 비롯한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가 개인의 가구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개인의 가구 소득이 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과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척에 대한 신뢰를 도구변수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일본 사회의 특성상 친척에 대한 신뢰가 개인의 일반신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둘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분석 결과 일반신뢰 수준이 높아질수록 개인의 가구 소득 수준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신뢰의 영역에서 일반신뢰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신뢰가 경제적 거래의 범위를 넓히고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신뢰만이 개인의 경제적 성과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 결과일 것이다. 이에 따라 특정신뢰를 분석 대상에 포함한 Tu & Bulte(2010) 역시 일반신뢰만이 공식적 고용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 소득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Tu & Bulte(2010)는 중국의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개인의 일반신뢰뿐만 아니라 특정신뢰가 그들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농촌 지역에서 노동 시장 참여는 사적인 노동

교환 또는 공식적인 고용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때 특정신뢰는 개인적인 1:1 노동 교환에, 일반신뢰는 공식적인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중 일반신뢰를 통한 공식적 고용만이 개인 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밖에 국내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 오선정(2017)은 2016년 한국사회통합실태조사를 이용하여 개인의 다양한 대상(일반인, 기관, 지인, 이웃, 외국인, 타인)에 대한 신뢰와 소득을 비롯한 경제적 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인 및 외국인 신뢰 수준과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네트워크와 경제적 성과

네트워크가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대부분 정보를 비롯한 자원의 획득 차원에서 설명된다. 네트워크는 “사회의 행위자들이 서로 맺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로(Cai, 2004; Scott, 2011) Putnam(2000)은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사회자본을 결속(bonding)과 교량(bridging)적 성격으로 구분하였다. 결속형 사회자본은 “배타적인 정체성을 고수하는 동질적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교량형 사회자본은 “다양한 사회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로 정의된다.¹⁾ 즉, 결속형 네트워크는 구성원 간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동질적인 네트워크를, 교량형 사회자본은 사회·경제적 특성이 상이한 구성원 간의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이다.²⁾ 이때 가족과 친구, 가까운 이웃과 같이 동질적 특성 및 정체성을 공유한 사람들이 형성하는 네트워크는 그 집단적 필요(collective needs)에 따라 강한 신뢰와 높은 수준의 규범을 공유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에 소속된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이고 정서적인 후원을 제공한다(남궁근, 2007; 이현우 외, 2011). 그에 반해 공유되는 정체성이 없이 이질적 특성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형성하는 네트워크는 다양한 이해(diverse interest)를 포함하고 있어 내부의 신뢰와 규범은 약하지만, 다양한 사람들과의 정보 채널을 형성함으로써 구성원들에 이익을 제공한다(남궁근, 2007; 이현우 외, 2011).

한편 Granovetter(1973)는 보다 직접적으로 경제적 성과에서 네트워크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는 함께 보내는 시간, 감정적 유대의 정도, 친밀도, 상호 지원 등을 기준으로 개인이 형성하는 네트워크를 강한 연결망(strong ties)과 약한 연결망(weak ties)으로 구분하였다.³⁾ 그리

1) 이후 연구인 Putnam(2007)에서는 보다 정의를 완화하여 결속형 네트워크를 “중요한 부분에서 나와 같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로, 교량형 네트워크를 “중요한 부분에서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로 정의하였다(Putnam, 2007; 신원준, 2017 재인용).

2) Coffe & Geys(2007)는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결속형 네트워크를 구성원의 동질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 조직과 같이 닫힌(closed), 폐쇄적 네트워크로, 교량형 네트워크를 다른 사회 영역에 존재하는 사람들 간의 열린(opened), 개방적 네트워크로 정의한다.

3) 따라서 가족, 친구, 이웃과 같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고, 감정적으로 강한 유대와 친밀감을 가지며 상호 지원 등이 보장된 관계는 강한 연결망으로, 그 반대의 단순히 아는 사람과의 관계는 약한 연결망으로

고 미국 보스턴 거주 구직자의 직업 획득 경로를 조사하여 강한 연결망에 비해 “약한 연결망을 통할 때 개인은 구직행위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고 소득수준도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이성균, 2006 재인용). 이에 대해 Granovetter(1973)는 약한 연결망은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직에 필요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직업 획득에 도움이 되는 반면 강한 연결망을 구성하는 가족이나 친지의 관계는 교환되는 정보가 반복적이며 동질적이어 구직활동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사회자본으로서 관계를 강조한 Burt(1984) 역시 네트워크가 개인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거래 교섭력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Burt(1984)에 따르면 개인은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s)’으로 표현되는 교량형 네트워크에서의 관계에 위치함으로써 더 큰 정보 접근성과 교섭력을 갖게 된다. 즉, 사회 내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대상과 연결이 가능한 구조적 공백에 위치함으로써(장미혜 외, 2009), 그리고 더 많은 대상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음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고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종효명, 2008).

이에 반해 Alesina와 Giuliano(2010)는 강한 가족 관계(결속형 네트워크)가 개인의 경제적 행동과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가족 간 유대 수준이 높고, 가족 규모(family size)가 커질수록 가족 내 여성 및 유년층의 노동 시장 참여는 감소하고, 생산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가족과 같은 결속형 네트워크의 형성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성과에 도움이 되는 분업이 원활해지고, 구성원 간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해지기 때문에 경제적 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아시아 국가들과 같이 혈연을 중심으로 문화를 형성하는 특정 사회에서 더욱 강화된다. 대표적으로 Bian(1997)은 중국 사회에서 물질적·정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부모와 자녀 사이 같은 혈연관계에서 가장 강력하며, 이는 구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을 설명한다. Lin(2001) 역시 중국에서 여성들이 혈연관계와 같은 결속형 네트워크에 내재한 사회자원을 활용하여 더 많은 경제적 성과를 얻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 연구인 이윤구·현명환(2018) 역시 한국 사회에서 연고 주의에 기초한 인적관계가 구성원들 간에 연관성, 동질성, 친밀성, 소속감, 충성심을 강조하여 물리적 부조의 요인을 강화함을 주장한다.

Hermann & Kopasz(2011), Weaver & Habibov(2012)는 각각 유럽과 캐나다, 미국 시카고 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로서 사회자본이 개인의 소

정의된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Granovetter(1973)가 정의한 강한 연결망과 약한 연결망은 Putnam(2000)의 결속형·교량형 네트워크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람들은 자기와 유사한 특성의 사람들과 강한 연결망을, 상대적으로 상이한 특성의 사람들과는 약한 연결망을 형성하기 때문이다(류태건, 2015). 따라서 이 둘은 후속 연구에서 동일 시 되는 경향이 있다(이성균, 2006; Gidengil&Stolle, 2009; Payne, 2013; 윤광일 외, 2016). 한편 이에 대해 ‘강한 교량형 연결망’이나 ‘약한 결속형 연결망’의 개념을 상정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두 차원이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신원준, 2017).

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먼저 Hermann & Kopasz(2011)는 네트워크를 개인의 자발적 단체 가입 수와 친구와의 접촉 빈도로 측정하여 각각의 형성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Weaver & Habibov(2012)는 가까운 친구 및 친척의 수와 그들과의 접촉 빈도(실제 대면 접촉 빈도,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접촉 빈도), 힘들 때 의존할 수 있는 대상 유무로 사회자본과 개인 소득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친구와의 대면 및 전화를 통한 접촉 빈도를 제외한 모든 사회자본 변수가 소득과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네트워크를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한 연구로 Zhang 등(2011), Payne(2013), Growiec & Growiec(2016), 박종남 외(2018) 등이 있다. Zhang 등(2011)은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결속형 네트워크와 교량형 네트워크가 개인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결속형 네트워크를 친지, 이웃, 동료의 범위로 두고 이들 구성원간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개인의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반면에 교량형 네트워크는 그 범위가 넓을수록 소득이 높을 것으로 파악하고, 참여하는 단체 수의 합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교량형 네트워크만이 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Payne(2013), Growiec & Growiec(2016)은 결속형 네트워크를 포함하지 않고 교량형 네트워크가 개인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먼저 Payne(2013)은 교량형 네트워크를 단체 참여 범위와 정도로 구분하고 개인이 속한 시민 및 사회단체 수의 합과 단체 참여 적극성으로 각각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교량형 네트워크가 가구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Growiec & Growiec(2016)은 동일 주제에 대한 2010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량형 네트워크(친구, 이웃, 동료와 보내는 시간)와 일반신뢰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⁴⁾ 분석 결과 개인의 교량형 네트워크가 소득과 역 U자형 관계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즉, 개인이 형성한 네트워크의 규모가 일정 수준까지는 개인의 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관계 형성에 투자하는 시간과 자원이 지나치게 커져 소득을 위한 생산 등을 감소시켜 오히려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Growiec & Growiec, 2016).

한편 박종남 외(2018)는 네팔 티카푸르(Tikapur) 지역 주민의 설문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결속형, 교량형 사회자본이 개인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결속형 사회자본으로 개인의 이웃에 대한 신뢰와 가치, 규범의 공유에 대한 응답 평균으로, 교량형 사회자본으로는 정치적 참여, 정책 결정 과정 참여, 지역 의사결정 과정 참여, 이질적 배경을 가진 타인과의 참여에 대한 응답 평균으로 구성하였다(박종남 외, 2018). 이때 소득 수준과 사회자본의 역의 인과 문제를 고려하여 종교 중요성을 도구변수로 활용하였고, 분석 결과 결속형 사

4) Growiec&Growiec(2010)은 사회자본을 결속형(자주 만나는 가족 구성원 수)과 교량형(자주 만나는 친구 수)으로 구분하여 개인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역 U자형의 관계가 있는 교량형 사회자본과 달리, 결속형 사회자본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결속형 네트워크는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자본은 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교량형 사회자본은 소득에 역 U자형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박종남 외, 2018).

이 밖에 국내 자료를 이용한 연구로는 이성균(2006), 이윤구·현병환(2018)의 연구가 있다. 이성균(2006)은 한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관계의 규모와 상대적 중요성으로 네트워크를 파악하여 영업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때 사회관계의 규모는 혈연관계(직계 가족 및 친척)의 규모와 비혈연관계(지역, 학교, 직업 및 기타 사회경험을 통하여 형성한 친구)의 규모로 사회관계의 규모를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혈연관계와 비혈연관계 모두 그 규모가 커질수록 소득이 증가하였다.⁵⁾ 이윤구·현병환(2018)은 대전지역의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갖는 학연, 지연, 직연으로 구성된 결속형 네트워크가 그들의 경영 성과(정부과제 확보, 경영개선, 기업성장을 위한 노하우 획득, 4차 산업 관련 경쟁력 확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학연과 직연으로 구성된 결속형 네트워크가 그들의 경영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게 하여 경영 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 및 특성 별로 경제적 성과를 확인하며, 연구 대상 및 배경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라 경제적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Ⅲ. 연구의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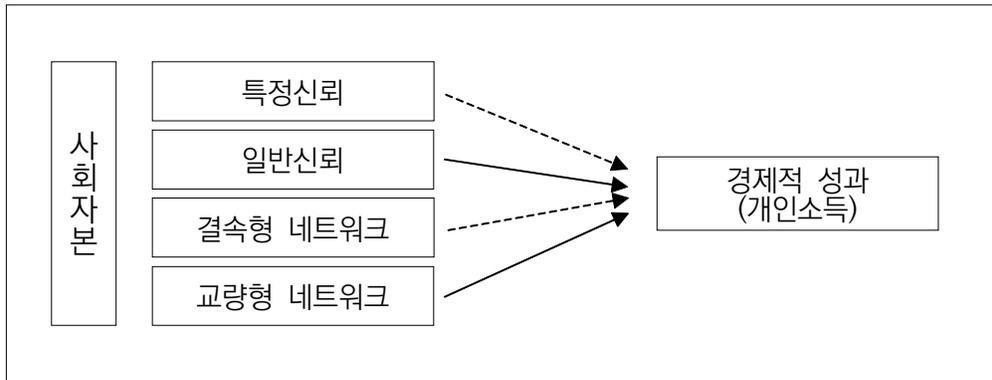
1.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와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관계의 특성에 따라 개인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⁶⁾ 즉 신뢰는 연고집단 중심으로 형성되는 특정신뢰와, 연고가 없는 일반인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일반신뢰로 구분하고 이러한 신뢰의 특성에 따라 개인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네트워크 역시 동질적 구성원 간의 관계인 결속형 네트워크와 이질적 구성원과의 관계인 교량형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이렇게 다른 네트워크가 개인 소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증할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5) 이성균(2006)은 사회관계의 중요성을 (혈연관계, 친구, 아는 사람, 전문 기관에 대한) 일상생활 자원의 의존 여부와, 창업정보 제공 여부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모두 개인 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6)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는 신뢰, 규범, 신념, 의무, 관계, 네트워크, 정보흐름,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 제도 등 다양하게 파악되나(Bhandari&Yasunobu, 2009), 본 연구는 Putnam(1993)의 정의에 따라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신뢰(trust)와 네트워크(network)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주: (실선——): 영향이 있음
(점선-----): 영향이 없음

〈그림 1〉의 연구모형은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신뢰와 네트워크라는 사회자본이 경제적 성과인 개인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먼저 신뢰와 경제적 성과에 대한 기존 연구는 개인적 특성을 공유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신뢰인 일반신뢰가 개인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일반적이다. 반면 다양한 특성을 공유하는 친밀한 대상에 대한 신뢰인 특정신뢰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검증 결과가 부족하며, 일부 연구 결과가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제시한 바 있다 (Tu & Bulte,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특정신뢰는 개인의 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일반신뢰는 개인의 소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트워크와 개인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연구 역시 그 특성에 따라 일관된 영향을 보여주지 않는다. 우선 구성원 간에 다양한 특성을 공유하는 결속형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사회에서는 결속형 네트워크가 개인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하였지만 Granovetter(1973)를 비롯한 대부분의 연구는 교량형 네트워크만이 개인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교량형 네트워크가 구성원의 이질적 특성으로 네트워크에서 공유되는 정보가 다양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계가 다양화하고 많아질수록 직업 획득과 소득 증가 등의 경제적 성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에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결속형 네트워크는 개인의 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교량형 네트워크는 개인의 소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측정 및 변수

본 연구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를 신뢰와 네트워크로 파악하고, 이들이 형성되는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특정신뢰와 일반신뢰, 결속형 네트워크와 교량형 네트워크로 구분하였다. 이때 특정신뢰는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로, 일반신뢰는 일반적 타자에 대한 신뢰로 정의되며 설문문을 통해 각 “대상(가족, 이웃, 지인, 낯선 타인,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을 가족, 이웃, 지인에 대한 신뢰를 특정신뢰로, 낯선 타인,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신뢰를 일반신뢰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⁷⁾

네트워크는 구성원 간 사회·경제적 특성의 공유 여부에 따라 결속형 네트워크와 교량형 네트워크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구성원 간에 공통된 특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단체(동창회 및 향우회) 참여 수준을 결속형 네트워크로, 구성원의 특성과 무관하게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단체(시민단체, 자원봉사 및 기부단체, 사회적 경제 조직, 정당) 참여 수준을 교량형 네트워크로 각각 측정하였다.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모인 단체의 구성원은 사회·경제적 특성이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다른 연구자들도(이현우 외, 2011; 윤광일 외, 2016) 가족, 가까운 친구와 같이 결속형 네트워크의 범위를 좁게 설정한 국외 연구와 달리 연구주에 따른 문화가 형성된 한국 사회자본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창회, 향우회 등으로 결속형 네트워크를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각 변수의 측정 항목들이 하나의 변수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일 항목으로 구성된 결속형 네트워크를 제외하고 모두 신뢰계수(Cronbach's α)가 0.6이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1〉 사회자본 변수의 요인 분석 결과

구분	항목	회전된 성분행렬				
		1	2	3	4	
신뢰	특정신뢰	가족	-0.033	-0.138	0.832	-0.016
		지인	0.068	0.205	0.754	0.024
		이웃	0.012	0.493	0.501	0.114
	Cronbach α		0.555			
	일반신뢰	낯선사람	0.047	0.902	0.051	0.004
		국내거주 외국인	0.065	0.892	0.022	-0.019
		Cronbach α		0.825		

7) 이와 유사하게 박희봉(2018)에서는 특정신뢰를 “개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된 사람에 대한 신뢰”로, 일반신뢰를 “개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신뢰”로 정의하여 특정신뢰를 친구, 친척, 직장 동료, 동창, 직장상사에 대한 신뢰로, 일반신뢰를 일반인, 낯선 사람, 외국인 등에 대한 신뢰로 측정하였다.

네트워크	결속형 네트워크	동창회 및 향우회	0.136	0.015	0.036	0.980
	교량형 네트워크	시민단체	0.770	0.052	-0.041	-0.016
		자원봉사 및 기부단체	0.677	0.020	0.091	0.160
		사회적 경제조직	0.757	0.032	0.017	0.010
		정당	0.666	0.030	-0.013	0.045
		Cronbach α	0.655			

연구의 종속 변수인 개인의 경제적 성과는 월 평균 개인소득으로 응답자의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및 이전 소득의 총 합을 월 평균으로 환산한 것이다.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설문은 ‘소득없음’에서 ‘1000만원 이상’까지 100만원 간격으로 12단계의 척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이를 연구에 반영하였다.⁸⁾

이상에서 정의한 변수 및 하위변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항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조작적 정의 및 측정 항목

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종속 변수	개인의 경제적 성과		월평균 개인 소득 (12점 척도)	
독립 변수	신뢰	특정신뢰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	가족, 이웃, 지인에 대한 신뢰수준 (4점 척도)
		일반신뢰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	낯선 타인,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신뢰 수준 (4점 척도)
	네트워크	결속형 네트워크	구성원 간 사회·경제적 특성을 공유하는 단체참여	동창회 및 향우회 참여 수준 (5점 척도)
		교량형 네트워크	구성원 간 사회·경제적 특성을 공유하지 않는 단체 참여	시민단체, 자원봉사 및 기부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정당 참여 수준 (5점 척도)

3.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사회자본이 개인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사회통합실태조사의 2015년부터 2018년의 4개년도 자료를 통합하여 활용하였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개인 소득을 비롯한 응답자의 기본적인 사항과 신뢰와 네트워크, 단체 참여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여 본 연구의 주제인 사회자본이 개인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다단계층화확률비례추출을 통해 표본을 선정하여 2015년 7,700명,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각

8) Zhang 등(2011)을 비롯한 연구에서는 소득 분포의 비대칭도(skewness)를 고려하여 소득 응답치에 자연 로그를 취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득의 경우 연속형 척도로 측정된 것이 아니며, 소득 없음 응답치를 제외하고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자연 로그를 취하지 않았다.

8,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국민 전체의 특성으로 일반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⁹⁾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설문지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을 보면, 남자가 16,000명(50.5%), 여자가 15,700명(49.5%)로 나타났다. 연령 또한 20대(19세~ 29세)부터 60대까지 5,872명(18.52%), 6,079명 (19.18%), 7,261명(22.91%), 7,417명(23.40%), 5,071명(16.00%)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혼인 상태는 미혼과 사별, 이혼을 합하여 '배우자 없음'으로, 기혼을 '배우자 있음'으로 분류하였을 때 각각 10,407명(32.8%), 21,293명(67.1%)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교육)받지 않음'(무학)이 109명(0.34%), '초등학교' 1,376명(4.34%), '중학교' 2,263명(7.14%), '고등학교' 12,000명(37.85%), '4년제 미만 대학교' 5,831명(18.39%), '4년제 이상 대학교' 9,514명(30.01%), '대학원 석사 과정' 500명(1.58%), '대학원 박사 과정' 107명 (0.34%)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직종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직업 없음'이 9,051명(28.6%), '관리 및 전문직'이 2,010명(6.3%), '사무직'이 5,358명(16.9%), '판매 및 서비스직'이 8,740명(27.6%), '기타'가 6,541명 (20.6%)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거주 지역은 수도권이 8,326명(26.3%), 비수도권 광역시가 10,361명(32.7%), 비수도권 일반도가 12,124명(38.2%), 기타(제주도)가 889명(2.8%)으로 구성되었다.¹⁰⁾

9) 설문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및 2013년 세종시 특별 센서스, 2015년 신축 아파트 조사구 결과를 토대로 가구 및 인구수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17개 시/도를 1차 층화한 뒤, 다시 권역/동/읍면부 단위로 2차 층화, 아파트와 일반가구로 3차 층화하여 이에 따라 표본 가구를 추출하여 해당 가구의 가구원(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가구의 적격 가구원)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구분	1차 층화	2-3차 층화	총수
특/광역시	특·광역시 7개	- 서울: 4개 권역/ 동부/ 주택유형	20
		- 6개 광역시: 동부/ 주택유형	
도 지역	경기도 1개	- 동부	2
		- 읍면부	
도 지역	경기도 1개	- 2개 권역/ 동부/ 주택유형	6
		- 2개 권역/ 읍면부	
	그 외 도 8개	- 동부/ 주택유형	24
	- 읍면부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17)의 재구성

10) 거주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세종), 비 수도권 광역시(광주, 대구, 대전, 부산, 대구, 울산), 비 수도권 일반도(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기타(제주)로 구분하였다.

〈표 3〉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

구분		전체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6,000	50.5
	여자	15,700	49.5
연령	20대(19세 포함)	5,872	18.5
	30대	6,079	19.2
	40대	7,261	22.9
	50대	7,417	23.4
	60대	5,071	16.0
혼인상태	배우자 없음	10,407	32.8
	배우자 있음	21,293	67.2
교육수준	무학	109	0.34
	초등학교	1,376	4.68
	중학교	2,263	7.14
	고등학교	12,000	37.85
	대학(4년제 미만)	5,831	18.39
	대학(4년제 이상)	9,514	30.01
	대학원(석사과정)	500	1.58
	대학원(박사과정)	107	0.34
직종	직업 없음	9,051	23.6
	관리 및 전문직	2,010	6.3
	사무직	5,358	16.9
	판매 및 서비스직	8,740	27.6
	기타	6,541	20.6
지역	수도권	8,326	26.26
	비수도권 광역시	10,361	32.68
	비수도권 일반도	12,124	38.25
	기타(제주)	889	2.80
전체		31,700	100

IV. 분석결과

1. 국내 사회자본의 형성 특성

우리나라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개별 신뢰 및 네트워크 항목의 평균값과 구분에 따른 특정

신뢰, 일반신뢰, 결속형 네트워크, 교량형 네트워크의 평균값을 다음 <표 4>로 정리하였다.

<표 4> 사회자본의 평균값

변수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신뢰	특정신뢰	31,700	3.04	0.440
	가속	31,700	3.56	0.569
	이웃	31,700	2.66	0.649
	지인	31,700	2.90	0.595
	일반신뢰	31,700	1.78	0.610
	낯선사람	31,700	1.78	0.662
	국내거주외국인	31,700	1.77	0.661
네트워크	결속형 네트워크			
	동창회 및 향우회	31,700	2.47	1.48
	교량형 네트워크	31,700	1.21	0.48
	시민단체	31,700	1.11	0.51
	자원봉사 및 기부단체	31,700	1.42	0.97
	사회적경제조직	31,700	1.16	0.63
	정당	31,700	1.14	0.53

먼저 신뢰 영역에서는 가족 신뢰의 평균치가 3.56으로 전체 신뢰 영역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웃(2.66)과 지인(2.90) 등 특정신뢰가 일반신뢰를 구성하는 낯선 사람(1.78)에 대한 신뢰와 국내 거주 외국인(1.77)에 대한 신뢰에 비해 평균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표본의 가족, 이웃, 지인에 대한 신뢰 응답치의 평균을 적용한 특정신뢰 변수의 평균(3.04)이 일반신뢰의 평균(1.78)에 비해 높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내 사회자본의 형성 수준에 대한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 박희봉(2002)은 2002~2003년도에 수행한 국내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신뢰의 성분 별로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대인 신뢰의 영역에서 특정신뢰가 다른 모든 신뢰(일반신뢰, 사회단체 신뢰, 대중매체 신뢰, 공공기관 신뢰)에 비해 높음을 확인한 바 있다. 유시용(2017) 역시 WVS의 Wave 6(2010년 조사 수행)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사회자본 특성을 연구한 결과 다른 대상에 대한 신뢰에 비하여 가족에 대한 신뢰가 압도적으로 높음을 확인하고 있어, 분석 범위와 기간을 달리 하더라도 국내 사회자본의 특정신뢰 수준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네트워크 역시 평균적으로 결속형 네트워크인 동창회 및 향우회의 참여 정도(2.47)가 교량형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시민단체(1.11), 자원봉사 및 기부단체(1.42), 사회적 경제조직(1.16), 정당(1.1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역시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박희봉(2002; 2010)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향우회, 종친회, 동문회 등의 연고단체(수직적 단체)의

참여수준이 더 높음을 확인한 바 있다. 즉, 국내 사회자본은 혈연, 지연, 학연 등을 기반으로 한 단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특정신뢰가 일반신뢰보다, 그리고 결속형 네트워크가 교량형 네트워크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한국사회의 사회자본이 1차적이고 직접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이 사회자본의 개인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영향에서 반영될 수 있음에 따라, 본 연구와 같이 관계의 특성에 따른 구분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사회자본과 개인 소득의 관계

신뢰와 네트워크가 개인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모델 1]은 개인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인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직종, 거주지역을 반영한 것으로, 전체 설명력(adj. R^2)이 57.88%로 나타났다. 이때 대부분의 통제 변수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개인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인적 자본 요소가 전반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델 2]는 [모델 1]의 변수에 본 연구의 독립 변수인 사회자본 변수를 추가한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모형의 전체 설명력(adj. R^2)은 58.58%로 나타났다. 이는 통제 변수만을 반영한 [모델 1]에 비해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며(R^2 변화량=0.007, $p < .05$)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개인 소득에서 교육수준, 직종과 같은 인적 자본 및 그 밖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자본 역시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하게 한다.

[모델 2]에서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각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특정신뢰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자본 변수와 대부분의 통제변수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신뢰 변수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특정신뢰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일반신뢰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일반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 결과는 결속형 네트워크와 교량형 네트워크 모두 개인 소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쳐, 개인의 결속형 네트워크와 교량형 네트워크의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도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개인 소득에 대한 각 사회자본 변수별 영향력에 있어서는 결속형 네트워크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와 차이점을 갖는다.

〈표 5〉 개인의 경제적 성과(소득)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모델 1		모델 2		
		β	std. E	β	std. E	
통제 변수	성별(남성 1)	0.293***	0.015	0.288***	0.015	
	연령	0.127***	0.007	0.118***	0.007	
	혼인상태(배우자있음 1)	0.066***	0.017	0.061***	0.017	
	교육수준	0.155***	0.008	0.148***	0.008	
	직종 a)	관리 및 전문직	0.404***	0.031	0.401***	0.031
		사무직	0.516***	0.022	0.510***	0.022
		판매 및 서비스직	0.520***	0.018	0.515***	0.018
		기타	0.395***	0.022	0.391***	0.022
	지역 b)	비수도권 광역시	-0.017***	0.018	-0.018***	0.176
		비수도권 일반도	-0.035***	0.017	-0.036***	0.173
		기타	-0.021***	0.042	-0.023***	0.042
	연도 c)	2016	0.007	0.019	0.007	0.019
		2017	0.030***	0.019	0.031***	0.019
2018		0.029***	0.019	0.029***	0.019	
독립 변수	특정신뢰			-0.007	0.016	
	일반신뢰			0.014***	0.011	
	결속형 네트워크			0.047***	0.005	
	교량형 네트워크			0.009*	0.014	
상수항		-0.514	0.045	-0.649***	0.064	
Adj. R ²		0.5788		0.5858		
F		3113.01***		2446.30***		

*p<0.05 **p<0.01 ***p<0.001

a) 직업없음 기준, b) 수도권 기준, c) 2015년 기준

이러한 분석에 따라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뢰와 관련한 [가설 1]의 세부 내용으로 특정신뢰는 개인 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일반신뢰는 개인 소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네트워크에 대한 [가설 2]에 있어서는 교량형 네트워크는 개인 소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부분은 채택되었지만, 결속형 네트워크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부분은 기각되었다. 즉, 개인의 결속형 네트워크 참여 수준 역시 소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새롭게 확인하게 되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에 대한 관계의 특성을 기초로 국내 사회자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각 특성이 개인의 경제적 성과로서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를 토대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는 신뢰와 네트워크로 파악하였으며, 신뢰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특정신뢰와 일반신뢰, 결속형 네트워크와 교량형 네트워크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인에 대한 신뢰의 수준으로 일반신뢰이다. 일반신뢰는 잘 알지 못하는 타인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에서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일반적 타자에 대해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경제활동은 활발해 지고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 반면에 잘 알고 있는, 가족, 이웃, 지인과 같이 개인적 관계가 형성된 사람에 대한 신뢰 수준은 그들과 직접적 경제적 거래를 맺지 않으며, 그 범위 역시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다. 분석 결과, 폭넓고 다양한 정보 공유가 가능한 교량형 네트워크는 물론, 특성을 공유하여 정보의 중첩이 발생하는 결속형 네트워크 역시 개인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속형 네트워크는 정보의 중첩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의 소득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제적 부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Bian 등(1997)이 강조한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혈연, 학연, 지연에 기초한 연줄 중심의 인관관계를 강조해 온 한국사회에서 결속형 네트워크가 개인 소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사회·경제적 배경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직접적 경제 부조가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자본, 특히 신뢰의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사회자본은 특정신뢰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박희봉, 2009; 박희봉 외, 2002).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보다 가족, 이웃, 지인에 대한 신뢰 수준이, 사회·경제적 배경의 공유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형성된 동창회 및 향우회 등과 같은 단체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을 신뢰의 범위가 가족과 같은 1차적 집단에 머무르는 특정신뢰 중심의 사회로 구분한 Fukuyama(1995) 이후, 한국 사회 사회자본의 형성 특성에 대한 일반적 견해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성과에 대해 특정신뢰가 아니라 일반신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의 신뢰가 특정신뢰 중심에서 일반신뢰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에서 더욱 주의 깊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기존 연구들은 경제적 성과에 결속형 네트워크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박종남 외, 2018; 이성균, 2006; 이윤구·현병환, 2018), 교량형 네트워크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Zhang, et. al., 2011; Payne, 2013; Growiec & Growiec, 2016; 박종남 외, 2018) 등 연구마다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결속형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교량형 네트워크가 모두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결속형 네트워크가 개인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국외 연구와의 차이는 네트워크의 측정 범위가 다른 것으로도 직접적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국내 사회자본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족 및 연고주의의 성향을 띠는 국내 사회자본의 특성을 반영하여 결속형 네트워크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넓게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속형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직접적 경제부조가 활발히 나타남에 따른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한국 사회에서는 약한 유대관계의 힘과 함께 강한 유대관계의 힘 역시 강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자본의 도구적 특성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제공한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사회관계를 직접적으로 동원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관계에서 형성된 신뢰 등을 기초로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소득 수준을 높이게 된다. 이때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기존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자본의 경제적 성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신뢰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기존 연구가 일반신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서 더 나아가 특정신뢰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또한 사회자본의 각 요소를 그것이 형성되는 대상과 관계의 특성에 따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국내 사회자본의 형성 특성을 확인하고, 개인 소득에 대한 영향을 특성으로 설명한다. 이를 통해 연구는 사회자본의 개념과 영향력에 대한 설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본 연구 역시 사회자본의 영향 연구들에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역의 인과관계에서 한계를 갖는다. 경제적 성과가 높을수록 신뢰나 네트워크의 형성 수준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 또는 집단 차원에서 공유되는 사회자본을 개인에게 귀속된 사회자본으로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Knack & Keefer(1997), Beulgelsdijk & Smulders(2003) 등의 연구는 본 연구와 유사한 측정 방식을 이용하여 지역 주민들에 배태된 사회자본이 해당 지역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후속 연구를 통해 개인과 지역 단위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연구의 경우 개인의 사회자본 효과가 지역 단위의 사회자본 수준에 따라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으로써 더욱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선(2014). 「신뢰는 경제발전에 기여하는가?」. 한국경제연구원.

- 김상묵·김승현(2018). 사회신뢰와 정부의 역할. 「한국공공관리학보」. 32(2): 1-24.
- 김승현·김상묵(2018). 사적 신뢰, 보편적 신뢰 및 제도적 신뢰 간의 관계: 발틱국가 중심의 사례 비교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32(4): 1-25.
- 김황목·남창우(2018).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주민참여 예산제도 성과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2(3): 25-52.
- 남궁근(2007). 사회자본의 형성과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쟁점. 「정부학연구」. 13(4): 297-325.
- 류태건(2015).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와 효과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종남·정무권·전미양(2018). 사회자본과 소득 관계: 네팔 Tikapur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21(2): 87-112.
- 박희봉(2009). 「사회자본: 불신에서 신뢰로, 갈등에서 협력으로」. 조명문화사.
- 박희봉(2018). 정부신뢰의 본질: 정권에 대한 신뢰인가, 정부 시스템에 대한 신뢰인가?. 「한국행정연구」. 27(4): 1-34.
- 박희봉·송용찬(2018). 공·사조직의 조직 문화와 조직 사회자본: Hofstede의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2(3): 381-403.
- 박희봉·이희창(2010). 사회자본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한중일 3국민의 시민의식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4(4): 1-29.
- 박희봉·이희창·김동욱·김철수·박병래(2002). 한국인의 신뢰 수준 및 영향 요인: 단체참여 및 개인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대인신뢰, 단체신뢰, 대중매체 신뢰. 「한국정책학회보」. 12(3): 200-225.
- 신원준(2017). 「한국 입국 이민자의 종교참여가 사회연결망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선정(2017). 「사회자본과 노동시장 성과」. 한국노동연구원.
- 유시용(2017). 한국 사회자본의 특성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31(4): 119-151.
- 윤광일·전경옥·김현숙·오혜진·오경석(2016). 「이민자 네트워크 해외사례 및 국내적용방안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 이동원(2013). 「사회신뢰의 결과와 원인」. 한국경제연구원.
- 이성균(2006). 한국 자영업자의 사회자본과 소득수준. 「한국사회학」. 40(5): 178-207.
- 이성철(2017). 로컬 거버넌스와 지역성장의 관계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1(4): 69-91.
- 이영현·유한구(2008). 기업의 사회적 자본이 지식활동에 미치는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11(1): 119-141.
- 이윤구·현병환(2018). 대전지역 최고 경영자의 인적 결속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10): 126-142.
- 이현우·이지호·한영빈(2011). 사회자본(social capital) 특성이 지역주의에 미치는 영향: 결속형과 교량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5(2): 150-171.

- 장미혜·민현주·이택면·염유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산업연구원·한신대학교·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사회자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용선·김재구(2006). 사회적 자본의 지각이 지식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금융 기관을 중심으로. 「인사관리연구」. 30(1): 59-91.
- 조문석·김지성(2018). 공공부문 성과정보 활용행태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32(4): 155-177.
- 종효명(2008). 「사회자본의 형성과 직업소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행정연구원(2017).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 Alesina, A. & Giuliano, P.(2010). The Power of the Family. *Journal of Economic growth*. 15(2): 93-125.
- Algan, Y. & Cahuc, P.(2013). *Trust, Institutions and Economic Development*. Handbook of Economic Growth. 2.
- Beugelsdijk, S. & Smulders, S.(2003). Bridging and Bonding Social Capital: Which Type Is Good for Economic Growth?. *ERSA Conference Papers ersa03p517*. Europ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 Bhandari, H. & Yasunobu, K.(2009). What is Social Capital?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Concept.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37(3): 480-510.
- Bian, Y.(1997). Bringing Strong Ties Back in: Indirect Ties, Network Bridges, and Job Searches in Chin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66-385.
- Blik, R.(2015). *Does Trust Pay Off?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 of Trust on Personal Income*. SSRN Working Paper.
- Bourdieu, P. (1986). *The Form of Capital*. In J. 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Sociology of Education. 241-258. New York: Greenwood.
- Briggs, X.(1998). Brown Kids in White Suburbs: Housing Mobility and the Many Faces of Social Capital. *Housing Policy Debate*. 9(1): 177-221.
- Burt, R. S.(1984). Network Items and the General Social Survey. *Social Networks*. 6: 293-339.
- Cai, R.(2004). *Trust and Transaction Costs in Industrial Districts*.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 Coffe, H. & Geys, B.(2007). Toward an Empirical Characterization Of Bridging and Bonding Social Capital.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6(1): 121-139.
- Coleman, J.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Dearmon, J. & Grier, K.(2009). Trust and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71(2): 210-220.

- Dincer, O. C. & Uslaner, E. M.(2007). *Trust and Growth*. Fondazione Eni Enrico Mattei. Working Papers 73.
- Dincer, O. C. & Uslaner, E. M.(2010). Trust and Growth. *Public Choice*. 142(1-2): 59.
- Fukuyama, F.(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Vol. 99). New York, NY: Free press.
- Gidengil, E. & Stolle, D.(2009). The Role of Social Networks in Immigrant Women's Political Incorpo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3(4): 727-763.
- Granovetter, M.(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Growiec, J. & Growiec, K.(2010). Social Capital, Well-Being, and Earnings: Theory and Evidence from Poland. *European Societies*. 12(2): 231-255.
- Growiec, J. & Growiec, K.(2016). Bridging Social Capital and Individual Earnings: Evidence for an Inverted U.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7(2): 601-631.
- Hermann, Z. & Kopasz, M.(2011).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Wage Income: A Multi-Country Analysis. *Corvinus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2(2): 3-26.
- Inglehart, R.(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m, B. Y. & Kang, Y.(2014). Social Capital and Entrepreneurial Activity: A Pseudo-Panel Approach.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97: 47-60.
- Kim, S. H.(2015). Trust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The Comparative Economic Review*. 22(1): 105-139.
- Knack, S. & Keefer, P.(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4): 1251-1288.
- La Porta, R., Lopez-de-Silanes, F., Shleifer, A., & Vishny, R.(2000). *Trust in Large Organizations*. Reprinted in P. Dasgupta, I. Serageldin, 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Lin, N.(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al and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chalski, N. & Schupp, J.(2009). Sozialer rohstoff: Den Meisten Menschen Kann Man Vertrauen. *DIW Wochenbericht*. 76(34): 570-579.
- Payne, S. M.(2013). *Neighborhoods, Social Capital and Economic Succes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Louisville.
- Putnam, R. D.(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 D.(1995).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 in America. *Political science & politics*. 28(4): 664-683.
- Putnam, R. D.(2000).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In: Crothers L., Lockhart C. (eds) *Culture and Politics*. Palgrave Macmillan, New York
- Putnam, R. D.(2007). Diversity and Commun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2006 Johan Skytte Prize Lecture.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30(2): 137-174.
- Scott, J.(2011). Social Network Analysis: Developments, Advances, and Prospects. *Social Network Analysis and Mining*. 1(1): 21-26.
- Sherif, M.(1962). *Intergroup Relations and Leadership: Introductory Statement*. John Wiley.
- Sztompka, P.(1999). *Trust: A Sociological Theor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 Q. & Bulte, E.(2010). Trust, Market Participation and Economic Outcomes: Evidence from Rural China. *World Development*. 38(8): 1179-1190.
- Weaver, R. D. & Habibov, N.(2012). Social Capital, Human Capital, and Economic Well-Being in the Knowledge Economy: Results from Canada's General Social Survey.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39(2): 31-53.
- Wheless, L. R.(1978). A Follow-up Study of the Relationships among Trust, Disclosure, and Interpersonal Solidarity.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2): 143-157.
- Yodo, M. & Yano, M.(2017). *Household Income and the OECD's Four Types of Social Capital*.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RIETI).
- Zak, P. J. & Knack, S.(2001). Trust and Growth. *The Economic Journal*. 111(470): 295-321.
- Zhang, S., Anderson, S. G. & Zhan, M.(2011). The Differentiated Impact of Bridging and Bonding Social Capital on Economic Well-Being: An Individual Level Perspective.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38(1): 119-142.

* **유지윤(柳智允)**: 중앙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자본, 조직, 규제 등이다(ryudec25@gmail.com).

* **박희봉(朴熙峯)**: 미국 Temple University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Citizen Participation, Satisfaction, and Government Responsiveness in the Process of Local Autonomy of Korea, 1994), 현재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부조직, 행정문화 및 사회자본 등이 주요 관심분야이며, 저서로는 「사회자본」(2009), 「좋은 정부, 나쁜 정부」(2013), 「교과서가 말하지 않은 임진왜란 이야기」(2014), 「5800 진주성 결사대 이야기」(2019), 논문으로는 공·사조직의 조직사회자본(2018), 정부신뢰의 본질(2018), 경기북도 설립 효과(2018) 등을 발표하였다. 주요경력으로 현재 한국공공관리학회 회장,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을 맡고 있다(hbpark@cau.ac.kr).